

전국 유람 '승람도 놀이' 재구성

전통문화전당, 휴가철 맞아 '놀이로 떠나는 전국여행' 20일 3인 1팀으로 진행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이 휴가철을 맞아 실내에서 전국 명승지를 살피는 놀이행사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일 전당 1층 '놀이 집'에서 총 3회에 걸쳐 '놀이로 떠나는 전국여행'을 진행한다.

'놀이로 떠나는 전국여행'은 10세 이상을 대상으로 3명이 한 팀을 이루는 놀이체험으로, 회차 별 6개 팀을 선착순 모집해 운영된다. 참가신청은 포스카에 첨부된 QR코드를 통해 사전예약 하거나 전화로도 가능하다.

이 행사는 우리나라 선조들이 명소를 돌아다니는 주사위놀이인 승람도놀이를 대형



시, 오후 2시, 오후 4시에 시작해 90분 동안

주사위 던지기, 사람이 말이 되어 이동하기 등 체험형으로 재구성한 놀이로, 명승지의 역사적 정보에 관한 퀴즈 등이 추가됐다.

행사는 회차별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4시에 시작해 90분 동안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김선태 원장은 "전국의 다양한 명승지를 떠나는 승람도 놀이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접하기 어려운 전통놀이를 일반에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놀이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놀이문화 전용 체험공간인 '놀이집'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다. 체험객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단체 현장학습도 진행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놀이진흥팀(063-281-1546)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기자



익산문화재아행 탐돌이 퍼포먼스 2022 익산문화재아행이 진행 중인 지난 13일 밤, 참가자들이 왕궁리유적지에서 탐돌이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출산·성장·입신출세, 향토 민속놀이를 표현하다

남원삼동굿놀이 향토축제 개최

남원시 보절면 삼동굿놀이 광장에서는 12일, 전통세시 풍속놀이인 제38회 '삼동(三童)굿놀이 향토축제'를 개최했다.

남원삼동굿놀이보존회가 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매년 백중날(음력 7월 15일) 마을의 무사와 풍년 농사를 기원하고 주민화합을 위해 열리는 민속놀이로, 이날 행사에서는 당산제를 시작으로 기세배와 당산굿, 지네밧기를 삼동굿놀이 재연과 주민화합행사가 진행됐다.

삼동굿놀이는 개신마을의 뒷산이 닭의 형상이고 음촌마을 앞의 산이 지네형상을 하여 마치 닭을 공격하는 형상을 하고 있어 지네밧기를 행함으로써 태어나는 동자들이 입신출세 부귀영화를 얻는다는 풍수설화에 근거한 민속놀이이다.

출산, 성장, 입신출세까지의 상황이 묘사되는 특징인 삼동굿놀이는 잡귀를 쫓아내어 마을의 번영과 주민의 안녕을 빌고, 한해 농사일에 수고한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술과 음식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적 두레놀이 성격을 띠고 있다.

올해로 제38회를 맞이하는 남원 삼동굿놀이는 1982년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지난 2001년에는 지역사회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바 있다.

소인섭 위원장은 "남원삼동굿놀이를 앞으로 가장 한국적인 향토 민속놀이 중 하나로 보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남원시 보절면 삼동굿놀이 광장에서 열린 '삼동굿놀이 향토축제'.

국악관현악단 코라이즌 '판콘서트', 8월 20일 부안예술회관 공연

부안군이 국악관현악단 코라이즌(대표, 이에원)을 초청하여 오는 20일 오후 3시에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국악관현악의 향연을 마련한다.

이날 공연은 우리나라의 관악기와 현악기 그리고 타악기 등 전통악기들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로 전통음악의 현대적인 재해석을 통해 한국의 정신과 정체성을 담은 풍부한 선곡들이 눈길을 끈다.

국악관현악으로 전통과 현대까지 아우르는

이번 무대는 젊은 여성 지휘자인 조다은 지휘자가 지휘봉을 잡고, 축명받는 판소리꾼 서의철이 협연자로 나선다.

공연 프로그램은 소리꾼 서의철이 장타령을 협연하고, 뱃노래의 선율을 차용한 신뱃노래, 그리고 영화 광해, 캐리비안의 해적, 시크릿 가든 OST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구성되었다. 다양한 선곡을 통해 우리 음악의 진수를 접하고 대규모의 관현악이 주는 음악적 만족감을 군민들에게 선사한다. /부안=김석진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안중근, 세계사적 야만성에 홀로 맞서다"

문 전 대통령, 김훈 작가 신작 장편소설 '하얼빈' 추천
시민의 한국사·짱깨주의의 탄생 등 SNS 통해 추천 이어가

문제인 전 대통령이 광복절 연휴에 읽으면 좋을 소설로 김훈 작가의 신작 장편소설 '하얼빈'을 추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훈의 신작 '하얼빈'은 광복절 연휴에 읽으면 좋을 소설"이라며 "내가 글쓰기의 모범으로 생각하는 짧은 문장과 간결한 문체의 힘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다.



김훈 장편소설 '하얼빈'

그는 "작가는 하얼빈역을 향해 마주 달려가는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의 여정을 대비시키면서, 단지 권총 한 자루와 백 투벌의 여비로 세계사적 폭력과 야만성에 홀로 맞선 한국 청년 안중근의 치열한 정신을 부각시켰다"며 추천 이유를 밝혔다.

또 문 전 대통령은 "작가는 독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동양평화'를 절규하는 그의 총성은 지금의 동양에서 더욱 절박하게 울린다"고 썼다. "천주교인이었던 안중근의 행위에 대해 당대의 한국천주교회가 어떻게 평가했고, 후대에 와서 어떻게 바로 잡았는지 살펴보는 것도 뜻깊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책 추천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시민의 한국사'를 비롯해 '짱깨주의의 탄생',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실크로드 세계사' 등의 책들을 지속해서 소개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캠페인